



군장대 패션산업과, 스웨덴에 한지한복 작품 전시

군장대학교 패션산업과는 스웨덴 FROMTFORS 종이박물관의 초대를 오는 9월 30일까지 한지한복 15점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또 일일오아디는 왕을 상징해 북쪽의 중앙에 배치하고, 심장색은 장수의 의미로 원삼에 시문(문양을 새김)함으로써 왕비를 상징해 왕의 곁에 배치했다. 끝으로 백색의 먹으로 터치한 한복은 흑백으로 구성해 선명한 기가와 절개 그리고 애민정신을 갖는 조선산비를 표상하고 왕의 전면에 배치하는 방식이다.

이번 전시는 스웨덴에서 한지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우복 작가의 주선으로 이뤄졌다.

작가에 따르면 먼저, 사신도의 청룡 백호, 현무, 주작을 동서남북에 배치했다. 또 일일오아디는 왕을 상징해 북쪽의 중앙에 배치하고, 심장색은 장수의 의미로 원삼에 시문(문양을 새김)함으로써 왕비를 상징해 왕의 곁에 배치했다. 끝으로 백색의 먹으로 터치한 한복은 흑백으로 구성해 선명한 기가와 절개 그리고 애민정신을 갖는 조선산비를 표상하고 왕의 전면에 배치하는 방식이다.

전시 기획을 담당한 전영배 교수는 "전통 한복에 민화를 접목시키고자 했다"며 "조선 건국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조선사상을 의상 뿐만 아니라 전시 구성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전시 작품은 LINC 3.0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와 지역작가들의 참여했다.

이처럼 화과장은 "앞으로도 종이 박물관과의 지속적인 문화 및 인적 교류를 통해 양국의 종이문화를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군산대, 지역기술 스타트업 IP 역량 강화 교육 성료

국립군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센터장 박운수)는 지난 7일(1차), 14일(2차), 20일(3차) 군산대산학협력관 이노테크홀에서 진행했던 창업보육센터 '지역기술 스타트업 IP 역량 강화 교육'을 완료했다고 21일 전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지식재산 교육사업 참여 센터로 선정되어 진행하였는데 올해 2023년 지역기술 스타트업 IP 역량 강화 교육 이 선착순 30명의 교육 예정이었는데 참여요청으로 매회 40여명이 넘는 참여자들이 함께 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및 군산대학교 강소특구 기업, 군산대학교 청년 TLO 소속 인력들이 참여하여 특허명세서의 작성 방법과 함께 특허침해의 소지를 사전에 회피할 수 있는 설계 방법, 특허심사 과정에서 제반 실무적 대응 방안에 대해 보다 세밀한 교육 지식을 제공했다.

그리고 전북지역 창업보육센터 매니저 및 전북지역 창업유관기관의 담당자들이 본 교육을 수료함으로써 기관 실무자 역량 강화 뿐만 아니라 향후 지식재산 인프라를 확보하고 관련 실적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번 교육은 특허법인 남원남 김승환 변리사가 총 3회차 강의를 담당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장수경찰,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운영

장수경찰서(서장 정덕교) 여성청소년계는 지난 20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6.15)을 맞아 장수시장 등에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장수 장날에 맞춰 시장 내 판매자와 소비자들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근절 기간 운영(6.1~6.30)' 문구가 쓰여진 모기(피해)·파스 등을 배부하면서,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하고, 피해 발생 시 신고 방법(112·노보전(1577-1389)·신고앱)을 안내하였다.

또한 읍·면사무소 등 행정기관 홍보용 LED전광판 및 장수경찰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을 홍보하였으며, 향후 대한노인회장수군지회를 방문하여 노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의 정의·학대유형·관련 범죄에 대해 교육 할 예정이다.

장수군은 초고령사회에 해당하며,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올해 4월 말 기준 7,904명으로 군내 전체 인구 대비 37.4%를 차지하고 있다. /장수=과관호 기자

“마을 공동체의 힘 발휘해”

익산 곳곳 주민이 직접 가꾼 동네정원 인기

익산시 곳곳에서 지역 주민들이 녹색힐링공간인 '동네정원' 조성에 나서고 있다.

삼기면에서는 이달 사오랑마을 유희부지 내에 '사오랑 행복정원'을 조성해 마을 주민들에게 큰 호평을 얻고 있다. 사오랑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직접 식재할 수목을 정하고 정원디자인을 정해 만들어진 공간이다.

화살나무와 사철나무로 정원 둘레를 두르고 라일락, 꽃망초, 수국 등을 식재해 정원의 풍성함을 더한 뒤 공작단풍을 식재해 '사오랑 행복정원'의 특색을 주어 주민들에게 휴식처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용포면에서는 지난 20일 지역주민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용포면 입절리 산 115-1번지 일대에 끝내들이 정원을 조성했다. 주민들이 직접 수수꽃다리, 자산홍 등 다양한 종류의 꽃과 나무를 심어 힐링공간으로 만들어 주민 뿐만 아니라 용포면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힐링공간이 되고 있다.

주민들은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정원 내 나무 및 관목들의 전지 및 제조작업 등 환경 정비를 실시했다.

21일에는 성당면 주민자치위원회 20여명이 행복복지센터와 보건지소 사이에 '성당면터 어울림 정원' 만들기에 나섰다.

농촌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울어져 고즈넉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힐링 공간 조성으로 흥단홍, 홍가시, 황금사철 등을 주민들이 선호하는 수목을 식재했다. 한편에 원터 조형물(파라솔 벤치, 그늘막, 조명 등)등을 배치하여 잠시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성당면 소재지 인근에 부족한 주민들의 휴식 공간과 볼거리 등을 제공하며 행정복지센터 방문객 등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들 어울림 정원은 익산시 우리동네 어울림 정원 만들기 사업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21일 왕궁면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주민들에게 꽃향기 가득한 여름을 선물하기 위해 여름꽃 1000여 본을 식재했다. 왕궁면 후암사거리의 회전교차로 화단에서 주민자치위원 20여 명이 참여하여 메리골드, 페튜니아 등 여름꽃 1000여 본을 심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섰다.

이번 활동은 2023년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아름다운 왕궁면 가꾸기 일환으로 지난 3월 말에 진행된 봄꽃 식재에 이어 두 번째 활동이다.

정현을 시장은 "주민들이 직접 동네 정원을 가꾸고 함께 어울리는 휴식 공간을 마련하며 마을 공동체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서거석 교육감, 안전한 교육시설 만들기 캠페인

서거석 교육감이 안전한 교육시설 만들기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달 제90회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시작돼 교육부, 교육청, 학교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등이 동참해 교육시설의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육시설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전북지역에서는 서거석 교육감을 시작으로 각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까지 챌린지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챌린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축·전기·소방 분야로 구성된 안전 점검 피켓을 활용해 인증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 후 개인 SNS에 게시하고, 후속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 교육감은 "이번 챌린지를 통해 교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공감대 형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교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교육감은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김복희 익산교육장, 박경희 군산교육장, 최금희 정읍교육장 등 3명을 지목했다. /장은성 기자



익산금강안경원, 마동지사협에 돋보기 200점 기탁

익산시 중앙동소재 금강안경원(대표 박진수)은 21일 마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엄미리, 민간위원장 백명순)를 찾아 마동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돋보기안경 200점을 기탁했다.

금강안경원은 2021년 중앙동 침수피해가 심각했을 당시 시청의 적극적인 대처와 의용소방대 등 여러 자원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이후 그에 대한 보답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돋보기안경 기탁을 시작했다.

지난 2년간 모현동 오산면, 송학동 중앙동 어양동 등에 약 900점 이상의 돋보기를 기탁해 왔으며, 올해는 마동에 돋보기 200점 기탁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기부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진수 대표는 "경제적인 이유로 구매가 어려웠거나 낡은 돋보기를 사용하는 어르신들이 좀 더 밝은 세상을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엄미리 마동장은 "기탁 해주신 돋보기는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겠다"며 "돋보기처럼 어려운 이웃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항상 귀 기울이는 마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교육지원청, 청소년 해외 진로·진학 탐방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만수)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2023 청소년 해외 진로진학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전교육에서 모둠별 탐구 주제 설정, 주제 중심 퍼실리테이션, 월드카페를 통해 일본 탐방 목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기주도적으로 진로진학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일본의 자연환경에 대한 학습과 지진 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일본 NTT 기술역사 박물관 파나소닉 그린 임팩트 파크 등 미래과학기술 및 환경생태 분야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기업을 탐방하고, 우에노 국립박물관, 국립과학박물관에서



일본과 동아시아 문화권의 역사와 자연과학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시청 로비서 전북 자활상품 시군 순회장터 열어

남원시에서는 21일 시청 로비에서 2023년 전북 자활상품 시군 순회장터가 열려 전북지역 지역자활센터에서 생산된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였다.

전라북도과 전북광역자활센터 주관으로 열린 자활생산품 순회장터는,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착한소비를 촉진하고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 14개 시군 지역자활센터에서 생산된 각종 제품을 시군마다 순회하며 홍보·전시·판매하는 행사다.

이번 순회 장터에서는 커피·쿠기, 밀키트(쌀국수·떡볶이), 유기농쌀채소, 누룽지, 반찬류, 김부각, 미숫가루, 선식, 가루, 캔들, 디퓨저, 천연비누, 각종 수공예품 등 품질이 우



수한 제품을 유통 마진없이 저렴한 가격에 선보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도통동, 사랑나눔장터 개최

남원시 도통동(동장 김운자)은 21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동 근린공원 에서 '도통사랑나눔장터'를 개최 평소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을 기부하고 모인 기부품을 판매로 교류하는 장을 마련해 장터 수익금은 나눔 캠페인에 기부할 예정이다.

장터 관계자는 "물건 기부로 만들어진 장터의 수익금을 재기부하는 기부의 선순환을 조성하고 평소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재사용하여 환경보호·자원순환에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장터에 참여한 한 주민은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이웃과 나눔으로써, 기부도 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재처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운자 도통동장은 "주민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소중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뜻 깊은 나눔 행사가 되었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협 무주군지부, 범농협 농촌 일손돕기 실시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 과 농협 무주군지부(지부장 김범석),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은 21일 북분자 수확기를 맞아 적상면 삼기리에 위치한 북분자 재배 농가를 찾아 범농협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일손돕기에 참여한 농협무주군지부, 전북농촌지원단, 무주농협 임직원 10여명은 북분자 수확 작업을 하면서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풍성한 수확의 결실을 함께 맛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농가에서는 "일손이 부족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많았는데 농협 직원 분들이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다"며 감사함을 표했다.

김범석 지부장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시, 거동불편 어르신 60명에 보행보조기 지원

김제시는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거동불편 해소를 위해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의 판정자 및 의사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통해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60명을 최종 선정하여 보행보조기 전달과 함께



운행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도 실시했다.

이번에 지원한 보행보조기 '실버카'는 견고한 비취와 경량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하며, 외출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의자와 가방이 장착되어 있어 편리성을 더했다.

또한 안전을 위한 핸드브레이크, 안전반사판 및 야간 유도등이 부착되어 있어 안전성도 높은 보조기이다.

보행보조기를 받으신 어르신들은 "그동안 다리가 불편해 경로당 가기도 힘들었는데 튼튼한 다리를 선물받아 고맙고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보행보조기 지원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